

5~6월 농업관측정보

1. 채소관측월보

가. 주요 채소류 출하·가격 전망

- 마늘 수확기 평균가격 kg당 2,200원선 전망. 저장업체 입고희망가격도 상승
- 양파 생산량 증가로 인해 5~6월 가격 kg당 400원 이하로 크게 낮을 전망. 산지의 양파 선별 출하 시급
- 봄배추·무 출하량 적으나, 저장량 많아 5월 가격도 낮을 듯. 배추는 6월부터 출하량 감소로 반전 전망
- 고추 5~6월 가격 작년보다 높겠으나, 600g당 6,000원 이하로 형성될 전망. 금년 산 고추 재배의향 감소
- 대파 5월 가격 약세이나, 여름대파 면적감소로 6월 이후부터 회복될 듯. 쪽파 5~6월 가격 약세 전망
- 봄감자 출하면적 감소하나, 단수 증가로 5~6월 출하량 작년과 비슷. 수매 가격 작년과 보합세 전망
- 봄당근 출하면적 증가와 겨울당근 저장량 증가로 5~6월 가격 약세 전망
- 봄양배추와 저장량 증가로 5월 가격 작년보다 낮으나, 평년보다 높을 전망. 6월 출하량 작년과 비슷할 듯

나. 고랭지 채소류 재배의향면적

- 재배의향 감소 작목

단위 : %(작년 대비 증감률)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고랭지감자	여름대파
-4	-1	-13	-2~-9

- 재배의향 증가 작목

-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5%증가
- 고랭지양배추는 2%증가

다. 중국 채소류 재배동향

- 고추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20~25% 증가
- 마늘 재배면적 작년보다 10% 증가
- 양파 재배면적 작년보다 10% 증가
- 봄당근 재배면적 작년보다 10% 증가, 봄배추도 20% 증가

2. 과일관측월보

가. 올해 과수 재배면적 작년보다 1% 감소

-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후지 만생종 중심으로 3%, 성목면적은 2% 증가 예상
-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감귤 1%, 단감 3%, 포도 2%, 복숭아 2% 감소하여 전

체 과수 재배면적은 1% 감소할 전망

-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도시개발 확대,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때문임

나. 과수 개화상황은 양호한 편

- 사과와 배의 개화 시기는 작년보다 평균 2일 빠르고 개화 상황은 양호한 편임. 3월 까지 기온이 전년보다 높아 첫 개화는 빨랐으나 저온 지속으로 개화기간은 길어짐
- 단감 발아상황은 작년보다 좋고 평년과 비슷하여 양호함
- 하우스포도 생육상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좋음
- 복숭아 개화 시기는 1~3월 기온상승으로 빨라짐. 개화 상황은 작년보다 좋아 양호한 편임

다. 사과 가격 강보합, 배는 강세 지속 전망

- 사과 저장량이 많으나 품질이 좋고 대체과일 물량도 적어 5~6월 가격은 현 시세가 유지될 전망
- 배 저장량이 적고 당도가 높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
- 하우스온주의? 당도가 높고 대체과일 물량이 적어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
- 하우스포도 5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듯. 6월에는 수입량이 늘어나지만 출하량 감소로 가격은 강보합세 전망

3. 과채관측월보

가. 5~6월 가격 전망

- 참외 5~6월 가격은 성주지역 참외재배 농

가의 품종 교체에 따른 부진으로 가격 강세 지속될 전망

- 수박 가격은 출하량이 다소 증가 하지만 품질이 좋고 대체과일 가격 높아 강세 유지할 듯
- 딸기 5월 가격은 봄철 고온현상으로 작황 부진이 예상되어 전년과 비슷할 전망
- 토마토 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일류 가격 강세로 보합세 나타낼 전망
- 청양계 풋고추, 일반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약세 지속 전망. 가격 하락세 여름철까지 지속될 듯
- 백다다기 출하량 많아 가격 약세 지속될 듯. 취청오이 출하량 감소하지만 백다다기 가격 약세로 4월보다 낮을 전망
- 애호박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약세 지속될 전망. 주키니 가격은 애호박 가격약세로 4월보다 낮을 전망

나. 5~6월 정식전망

- 시설수박 5~6월 정식면적 전년보다 6%, 13% 증가하고 노지수박 6%, 13% 감소 전망
- 작년 여름철 토마토 가격 높아 정식면적 약 6~7% 증가할 듯
- 5~6월 청양계 풋고추 정식면적은 4% 증가, 일반풋고추 2%, 1% 증가 전망
- 작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백다다기 정식면적 전년보다 3~6% 증가할 듯
- 노지재배 정식시기 앞당겨져 애호박 5월 정식면적 4% 증가하고 6월은 6% 감소 예상
- 작년 여름철 토마토, 오이 가격 높아 5~6월 정식면적 증가 예상됨. 8~9월 토마토, 오이 가격하락 예상되므로 5~6월 정식은 피해야 할 듯

4. 축산관측월보

가. 한육우

- 1) 한육우 사육두수 6월 213만두, 9월 217만두
 - 2007년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04만 3천두로 전년에 비해 20만 7천두(11.3%) 증가하였다. 한우 사육두수는 187만 1천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만 2천두(12.8%) 증가한 반면 육우 사육두수는 17만 2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5천두(2.8%) 감소하였다.
 - 한우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2007년 1~4월 동안 7만 6천 톤(전년 동기대비 63.5% 증가)이 수입되었다.
 - 2007년 3월~5월 송아지 생산두수는 23만 5천두, 도축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사육심리 불안으로 14만 5천두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13만 3천두, 9월 사육두수는 216만 9천두로 전망된다.
- 2) 6~8월 한우 산지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 3~4월에 하락하였던 한우 가격은 5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1등급이상 고급육의 감소폭보다 2, 3등급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크므로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 2007년 6~8월 한우 암소 산지가격은 510~520만원(600kg 기준, 전기 대비 1.8% 상승), 수소 470~480만원(2.5% 상승), 수송암소 가격은 215~225만원(4.1% 상승)로 전

망된다.

- 5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등급 판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농가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홍수출하가 발생할 경우 산지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우 사육농가는 홍수출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나. 젓소

- 1) 6월, 9월에도 젓소 사육두수 감소세 지속 전망
 - 지난해 젓소 인공수정 실적 감소로 1세 미만 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 1세 미만, 1~2세 두수 감소로 올해 1~2세, 2세 이상 두수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6월 사육두수는 작년 6월보다 3.1% 감소한 45만 7천두, 9월 사육두수도 45만두로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들어 분유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량 증가로 작년보다는 감소하였다.? 4월 말 분유재고는 9,526톤(11만 4천톤)으로 작년 4월보다 19.7% 감소하였다.
- 2) 2/4분기, 3/4분기 원유 생산량 소폭 감소 전망
 - 작년 분유재고 감소로 유제품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유제품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즈의 수입량은 9.5%, 혼합분유의 수입량은 56.2% 증가하였다.
 - 올해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작년 동기간보

다 0.4% 감소한 55만 9천 톤, 3/4분기에는 0.5% 감소한 52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미국의 올해 원유 생산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어서, 유제품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미국의 원유 가격과 유제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돼 지

1) 돼지 사육두수 증가 폭 둔화 전망

- 모돈수 증가로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지 않던 신규 진입이 어렵고, 돼지 질병 피해에 따른 폐사두수가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육두수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6월 사육두수는 939만두로 작년 6월보다 4.0% 증가하고, 9월에는 943만 2천두로 작년 9월보다 0.7% 증가할 전망이다.
- 5~8월에 출하되는 4개월령 미만 사육두수가 작년보다 증가하여 8월까지 돼지 출하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질병으로 비육기간 중에 돼지 폐사가 많아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6~8월 성돈 산지가격 24~25만원 전망

-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6~8월의 돼지 출하두수가 작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8월 성돈 산지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6~8월 성돈(100kg) 산지가격은 작년 동기간(28만원)보다 12.5%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보다는 약상승한 24~25만원으로 전망된다.

-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미국의 돼지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올해 12%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8% 감소할 전망이다.

라. 산란계

1) 사육수수 6월 5,738만수, 9월 5,821만수로 증가 전망

- 노계도태가 부진하여 6월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4.0% 증가한 5,738만수로 전망되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고 도태의향이 낮아 9월 사육수수는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한 5,821만수로 전망된다.
- 신계군이 증가하고 노계도태 의향도 낮아 9월의 산란용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0.9% 증가한 4,339만수로 전망된다.
- 병아리용 배합사료와 산란용 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6~8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6~8월 계란 평균가격 750~800원 전망

- 산란용 마리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6~8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832원)보다 하락한 750~80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최근,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산란율 저하로 일시적인 난가 상승이 있었으나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당수 산란용 마리수가 노계군이어서 도태가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계란의 품질 저하 현상과 가격 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마. 육 계

1) 6월에도 사육수수, 도계수수 증가세 지속

- 병아리 생산수수가 많아 6월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6.0%, 5월보다는 17.3% 증가한 8,934만수로 전망된다.
- 사육수수 증가로 6월 도계수수도 지난해보다 5.9%, 5월보다는 7.2% 증가한 6,536만수로 전망된다.
- 지난해 종계 입식수수가 증가하여 6월 이후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사육수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6월 육계 가격 700~900원 전망

- 도계수수, 냉동 비축량 등 닭고기 공급 증가로 6월 육계 가격은 생체 kg 당 700~900원으로 낮게 전망된다.
- 닭고기 공급과잉이 7,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복 육계 가격 또한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 또한 여전히 높아, 종계 도태가 지연될 경우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복 이후 연말까지의 육계 가격이 약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4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곳곳에 맥을 이어온 40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067-01-224657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